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림전>의 여성적 시각

곽보미*

- I. 머리말
- II.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림전>
- III. 장르관습에서 본 <방한림전>의 창작의도
- IV. 맺음말

<국문초록>

<방한림전>은 남성 주인공이 없고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혼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온 작품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나는 여성 간의 동성혼 화소가 여성영웅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소라는 점, 다른 하나는 장르관습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정한 기준이 부재한 채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기실 장르관습으로부터의 이탈 지표는 특정 화소의 유무 및 변화였던바, 역으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주요화소가 존재한다면, 이 화소를 장르관습을 나타내는 지표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여성영웅소설의 주요화소와 서사패턴 중 일부는 <방한림전>을 포함한 여성영웅소설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곧 <방한림전>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준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한림전>의 경우, 주요화소의 결합 순서 및 서사전개 상의 위치에 차이를 보인다. 남장 화소 뒤에 부모부재 화소가 결합하고, 동성혼 화소 뒤에 정체고백 화소를 결합함으로써 남장과 동성혼 화소의 성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다. 또 적강과 천정연 화소가 작품 후반부에 결합함으로써 여타영웅소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에 작자의 문제의식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이다. 동성혼이 방관주의 정체를 은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인식된 점, 반동인물인 주유량을 여성영웅소설의 유형적 인물로 설정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영혜빙이 그간 동성혼에서 배제돼 있던 또 다른 여성의 존재를 주목하여 재창조해 낸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영혜빙은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 이념에 의해 재현된 여성인물로부터 탈피하여, 가부장제의 여성상을 거부하고 남성젠더와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한다. 이로 인해 <방한림전>의 동성혼은 남성으로서의 삶과 남성에게 통제 받지 않는 여성의 삶을 살고자 한 여성들의 연대라는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영혜빙은 방관주의와의 관계에서도 종속된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거부한바, 가부장제의 여성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방한림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대한 작자의 문제제기이며, 이로써 ‘여성들’의 주체적인 삶에 대한 하나의 모색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핵심어: 여성영웅소설, 장르관습, 화소, 서사패턴, 동성혼, 방한림전

1. 머리말

<방한림전>은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성 주인공이 없고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혼(同性婚)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특히 동성혼 화소는 <방한림전>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간주돼 그 성격과 의미를 여성적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방관주와 영혜빙이라는 두 여성인물의 성격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작품이 당대 가부장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¹⁾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이 가진 필연적인 운명처럼 이 작품 또한 상반된 평가를 받아 왔다. 이때 동성혼은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의 연대와 대

응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시각과 여성영웅소설의 통속성에 따른 흥미소로 보는 시각으로 크게 나뉘게 된다.²⁾ 그 결과, <방한립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충실한 통속소설, 혹은 장르관습에서 벗어난 진보적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제기 된다. 첫 번째는 동성혼 화소가 여성영웅소설에서 흔히 발견되는 화소라는 사실이다.³⁾ 작품마다 양상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혼은 여성영웅소설의 주요화소로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방한립전>만이 아니라, 여성영웅소설 소재 동성혼 화소의 양상 및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다.⁴⁾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어떤 층위에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간 장르관습은 주로 서사구조 상의 유형성(類型性)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은, 남장(男裝)을 한 여성 주인공이 과거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하고 이후 외적의 침입에 출전(出戰)하여 구국(救國)의 영웅이 된다는, 공통된 서사구조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이후 공통된 서사단락의 결합 모형이 장르관습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⁵⁾ 문제는 이 두 층위에 따라 <방

-
- 1) 차옥덕, 『백년 전의 경고-방한립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김하라, 『「방한립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2002; 장시광, 『「방한립전」의 여성인물과 동성결혼』,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김정녀, 『「방한립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2006; 조현우, 『「방한립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박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지기와 그 의미』, 『고전과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회연구학회, 2018.
 - 2) 전자는 박혜숙, 차옥덕, 김정녀의 연구를, 후자는 장시광, 조현우, 김하라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 3) 동성혼 화소는 한국 여성영웅 서사만이 아니라, 중국 여성영웅 서사에서도 흔히 확인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5, 20~25면.
 - 4) 한국 고전소설 속 동성혼 화소에 대한 연구는 최지녀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그는 이 논문에서 <녀장군전>(〈정수정전>의 이본), <김희경전>(〈금환기봉>의 이본), <이대봉전>의 동성혼 화소도 아울러 살핀 바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동성혼 화소만이 아니라, 여성영웅소설에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화소의 전체적인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5) 전용문, 민찬, 최지녀(2015)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바,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

한림전>의 위상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자로 볼 경우 이 작품은 장르관습을 충실히 따른 작품이 되고, 후자로 볼 경우 장르관습에서 벗어난 작품이 되기 때문이다. 혹 두 가지 층위가 한 논의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평가가 나뉘게 된다.

본고의 문제의식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장르관습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연구자의 시각차에 따라 <방한림전>을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가. 그렇다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대한 구체적인 실체를 어떻게 확인해 볼 것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초가 있다.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 성과를 보면, 장르관습으로부터의 이탈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은 화소 단위였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동성혼 화소, 입양 화소의 삽입⁶⁾과 남장—남복개착(男服改着), 여화위남(女化爲男) 화소의 성격 및 의미 변화⁷⁾가, <방한림전>이 장르관습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지표로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관습적으로 통용되는 주요한 화소가 존재한다면, 이 화소가 장르관습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이러한 화소를 많이 공유할수록 장르적 친연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화소가 장르관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논의가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⁸⁾ 그러나 여성영웅소설, 특히 여성영웅의 서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아니었던바, 남성영웅 서사 중심의 시각에 매몰돼 있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여성영웅소설의 화소 분포를 살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화소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영웅을 군담에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활약하는 여성인물로 정의할 때, 해당하는 작품은 대략 27편이다.⁹⁾ 이 27편 중 여성영웅 서사에서 5회 이상 등장하는 화소를 여성영

연구에 대한 정리와 비판은 최지녀, 앞의 논문, 2015, 34~35면을 참조하였다.

6) 김정녀, 앞의 논문, 246면.

7)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26면~27면.

8) 김진영, 『화소와 결구방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유형성』,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박보미, 『영웅소설의 무장화소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8.

9) 강릉주월, 권익중전, 금환기봉, 금방울전, 금섬전, 박씨전, 방주전, 방한림전, 백학선전, 삼사명행록, 설소저전, 안연동전, 양소저전, 양주봉전, 옥주호연, 왕제홍전, 위봉월전, 유덕전, 이

웅소설의 주요화소로 보았다.¹⁰⁾

다음으로 주요 비교 연구대상은 27개의 작품 중 문제작인 <방한립전>을 포함한 다음 여섯 작품으로 삼았다: <이대봉전>, <정비전>, <금환기봉>, <정수정전>, <홍계월전>, <방한립전>.¹¹⁾ <방한립전>외 다섯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이들 작품이 공통적으로 남장의 지속성이 높고 현전하는 이본이 많아 향유층이 두터웠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 작품 개개를 살펴보면, 일부는 다른 유형으로 분류될 만큼 사뭇 다른 서사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이들 작품에서 화소상의 유형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울러 내용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 <방한

대봉전, 이봉빈전, 장국진전, 정비전, 정수정전, 최익성전, 홍계월전, 홍연전, 황운전.

- 10) 여성영웅소설을 포함한 영웅소설의 화소 분포를 도식화하는 작업은 『고전소설줄거리집성』(조희웅, 집문당, 2002)을 바탕으로, 2015년 서울대학교대학원에 개설된 박희병 교수 담당의 ‘동아시아 고전산문 연습’ 강의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보고는 해당 작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화소를 추출하였음을 밝힌다.
- 11) 각 작품의 대본은 선본(善本)을 위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이윤석·김경숙 교수, 『홍길동전·임장군전·정을선전·이대봉전』, 경인문화사, 2007; 김유경·이윤석 교수, 『유충렬전·정비전』, 이회, 2005; 임치균·이지영·강문중 교수, 『금환기봉·정수정전·홍백화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조광국 역, 『홍계월전』, 문학동네, 2017; <방한립전>,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11, 보경문화사, 1991. 동양문고본 <이대봉전>을 대본으로 삼은 까닭은, 선본인 나손본 계열이면서 축약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김경숙, 『「이대봉전」 이본고-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나손본보다 오류가 적은 국도관본에 비해 동성훈 화소와 관련된 장면이 더 자세했기 때문이다. 국도관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연구를 참고하였다: 김정녀, 『「이대봉전」의 이본 고찰을 통한 소설사적 위상 재고』,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화회, 2014. <정비전>의 경우, 30여종의 이본이 확인되지만 본격적인 이본 연구가 없어 부득이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동양문고본을 대본으로 삼게 되었다. 다만 정축년(丁丑年)에 필사된 김광소 소장본과 기유년(己酉年)에 필사된 김동욱 소장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성훈 화소와 관련된 서사는 더 확장돼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금환기봉>과 <정수정전>의 대본을 한중연본으로 한 것은 서사 편식이 확대되어 있는 선본이며 동일 계통의 이본에서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금환기봉> 및 <정수정전>의 이본에 대한 논의는 다음 연구를 각각 참고하였다: 강승묵,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2013; 사진실, 『「정수정전」 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홍계월전>의 이본 계통은 한중연본과 단국대본으로 크게 나뉘는데, 각 계통에서는 한중연 45장본과 단국대 103장본이 대표적이다. 정준식은 103장본과 45장본을 비교하여 서사구조상 103장본을 대표본으로 보았다(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참고). 그러나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서 45장본이 뚜렷한 문제의식을 보이는데, 45장본을 본고의 대본으로 삼았다. <방한립전>의 경우, 작품 구성상 가장 정제되어 있는 나손본을 대본으로 삼았다. 이후 작품 인용 시 필요에 따라 한자를 병기하고 출처는 작품명과 책의 면수만을 표시한다.

립전>이 장르관습을 수용하면서도 이탈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것이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방한립전>이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점하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방한립전>

1. 여성영웅소설의 주요화소와 서사패턴

27편의 작품 가운데 5회 이상 관습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화소들은 다음과 같다: ①태몽 ②적강 ③천정연(天定緣) ④간신모해 ⑤부모부재 ⑥정혼 ⑦늑혼(勒婚) ⑧남장(男裝) ⑨조력자 ⑩무예수련 ⑪택서(擇婿) ⑫동성혼 ⑬과거급제 ⑭전쟁 ⑮출전 ⑯전란평정 ⑰부마간택 ⑱정체고백 ⑲환복(換服) ⑳성혼(成婚) ㉑일부다쳐. 이를 여성영웅의 서사를 이루는 주요화소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 화소의 유형적 특징은 대체로 논의되었기에, 여기서는 택서, 동성혼, 정체고백, 환복 화소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택서 화소는 지인지감(知人之鑑) 화소와 주로 결합하여 비상한 인물임을 알아보고 사위로 삼으려는 화소를 말한다. 남성영웅의 서사에서도 흔히 확인되는데, 여성영웅의 서사에서도 흔히 사용된다. 택서 화소는 공을 세운 후 부마간택이 이루어지는 부마간택 화소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별도의 화소로 보았다.

동성혼 화소는 동성 간의 혼인과 관계된 사건을 다루는 화소를 모두 포함하는바, 혼담이 오가는 의혼(議婚), 혼인을 약속한 정혼(定婚), 혼례를 치르는 성혼(成婚) 등의 과정들이 이에 해당한다.¹²⁾ 동성혼 화소는 택서 화소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정체고백 화소는 남장을 통해 여화위남(女化爲男)을 한 여성 주인공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자신의 정체—여성임을 고백하는 화소를 말한다. 그러

12) 동성혼 화소의 정의는 다음 논의를 참고하였다: “소설 속의 동성혼은 대개 ‘미완성’으로 남게 되며 … 이렇게 동성 간의 미완의 혼인을 둘러싼 사건을 다루는 화소를 동성혼 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혼(議婚), 정혼(定婚), 빙폐(聘幣), 혼례(婚禮), 동거(同居), 해로(借老) 등 다양한 혼인의 단계를 포함한다.” 최지너, 앞의 논문, 2020, 32면.

한 계기는 전공(戰功)을 세운 여성 주인공이 부마로 간택 혹은 중직(重職)에 임명되거나, 정체를 의심 받는 사건의 발생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정체고백 화소와 긴밀한 결합 양상을 보이는 화소가 환복 화소이다. 여성 주인공이 남복(男服)을 벗고 여성의 복장으로 돌아오는 화소로, 주로 정체고백 화소 뒤에 위치한다. 작품에 따라 여성 주인공이 반복적으로 남장을 하다가 다시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제 <이대봉전>, <정비전>, <금환기봉>, <정수정전>, <홍계월전>, <방한림전> 속 주요화소 분포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대봉전	정비전	금환기봉	정수정전	홍계월전	방한림전
①	태몽	○	○	○	○	○	○
②	적강	○	○	○	○	○	○
③	친정연	○		○	○		○
④	간신모해	○	○	○	○		○
⑤	부모부계	○	○	○	○	○	○
⑥	정혼	○	○	○	○	○	○
⑦	늑혼	○	○				
⑧	남장	○	○	○	○	○	○
⑨	조력자	○	○	○	○	○	
⑩	무예수련	○	○	○	○	○	
⑪	택서	○	○	○	○		○
⑫	동성혼	○	○	○	○		○
⑬	과거급제	○		○	○	○	○
⑭	전쟁	○	○	○	○	○	○
⑮	출전	○	○	○	○	○	○
⑯	전란평정	○	○	○	○	○	○
⑰	부마간택	○		○	○		
⑱	정체고백	○	○	○	○	○	○
⑲	환복	○	○	○	○	○	
⑳	성혼	○	○	○	○	○	
㉑	일부다처	○	○	○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섯 작품에는 여성영웅소설의 주요화소들이 상당 부분 통용되고 있다. 방각본을 포함해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는 <이대봉전>의 경우, 거의 모든 주요화소가 쓰였고, 남성과의 관계에서 여성이 능력적 우위를 점하는 작품인 <정수정전>, <홍계월전> 역시 주요화소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방한림전> 또한 주요화소를 3분의 2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장, 동성혼 화소 이외에도 태몽, 적강, 천정연, 간신모해, 부모부재, 정혼, 택서, 과거급제, 전쟁, 출전, 전란평정, 정체고백 화소가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주요화소 중 몇몇은 특정한 결합방식을 보이며, 이러한 결합은 한 작품 내에서, 혹은 여러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쓰인다. 이는 서사패턴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서사전개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서사패턴	주요화소 결합 양상
패턴1	태몽-적강-천정연
패턴2	부모부재-남장-조력자
패턴3	택서-동성혼-과거급제
패턴4	전쟁-출전-전란평정
패턴5	정체고백-환복-성혼-일부다처

작품마다 결합방식에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나, 표에 제시된 형태로 결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패턴1은 태몽-적강-천정연 화소가 결합된 것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늦도록 자식이 없던 부부가 비범한 존재가 나타나는 태몽을 꾸고 주인공을 잉태한다. 그리고 출산을 돕기 위해 나타난 선인의 말을 통해, 주인공과 그 배필이 함께 적강한 사실을 전달받는다. 위 작품 중 <이대봉전>, <금환기봉>, <정수정전>에, 이와 같은 세 화소의 결합이 뚜렷이 나타난다. <정비전>, <홍계월전>에는 태몽 화소와 적강 화소만 결합하였고, <방한림전>의 경우 세 화소가 모두 나타나지만, 적강 화소와 천정연 화소만 결합하였다.

패턴2에서 부모부재 화소는 부친의 적거(謫居)로 인해 모친과 이별 혹은 사별(死別)하거나, 전란(戰亂)으로 인한 이별, 부모의 갑작스러운 병사(病死) 등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여성 주인공은 간신 집안과의 늑혼, 도적

의 위협에 노출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경우가 주를 이룬다. 이후 유랑하는 여성 주인공은 조력자를 만나 의탁하게 된다. <이대봉전>, <정비전>, <금환기봉>이 이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부모부재-남장-조력자 화소가 잘 결합되어 있다. 다만 <정비전>에는 작품 전반, 후반에 남장-조력자 화소가 거듭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 <정수정전>에는 부모부재-남장 화소의 결합 형태는 나타나지만 조력자 화소는 보이지 않는다. <홍계월전>과 <방한립전>의 경우, 남장 화소 뒤에 부모부재 화소가 결합하는데, <방한립전>에는 별다른 조력자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패턴3의 경우, 조력자가 여성 주인공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자 하는 과정을 구성한다. 이때 여성 주인공은 혼인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혼례를 올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과거급제 화소가 결합하여 혼인의 지연이 발생하게 되는데,¹³⁾ <이대봉전>, <금환기봉>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비전>에는 과거급제 화소가 누락돼 있고, <방한립전>에는 과거급제 화소가 택서 화소 앞에 위치한다. <정수정전>에는 세 화소가 모두 등장하지만, 작품 후반에 부마간택의 형태로 택서-동성혼 화소만이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홍계월전>에는 과거급제 화소만 등장하고 택서 화소나 동성혼 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패턴4는 군담을 구성하며 위 작품 모두에서 확인된다. 주지하다시피 군담을 통해 주인공은 영웅으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작품에 따라 전쟁과 출전 화소는 과거급제 화소와 마찬가지로 동성 간의 혼인을 지연시키는 부차적인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이대봉전>, <금환기봉>이다.

패턴5는 정체고백-환복-성혼-일부다처 화소가 결합된 것이다. 정체고백은 주로 임금에게 상소를 보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다만 그 계기의 양상은 비교적 다양한데, 중직에 임명되거나(<이대봉전>), 부마에 간택되거나(<금환기봉>, <정수정전>), 병에 의해 탄로나거나(<홍계월전>), 자신의 예견된 죽음으로(<방한립전>) 인해 여성 주인공의 정체고백이 이루어진다. 한편 <정비전>과 <방한립전>에는 동성혼을 한 상대 혹은 집안을 상대로 정체고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3) 최지녀, 위의 논문, 35면.

다만 이후 결합방식에서 <방한립전>의 가장 큰 변화가 감지된다. <방한립전>을 제외한 다섯 작품의 경우, 정체고백 이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와 남성 주인공과 혼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동성혼 화소는 일부다처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동성혼 화소가 없는 <홍계월전>을 제외한 네 작품이 모두 그러하다. 여성 주인공이 남성 주인공과 성혼함에 따라, 여성 주인공과 의혼, 정혼, 혼례한 상대들은 자연스럽게 남성 주인공의 부인으로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방한립전>에는 정체고백 화소가 사용되었음에도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형성하는 주요화소와 서사패턴이 존재하며, <방한립전>의 경우, 주요화소 및 서사패턴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적강-천정연, 남장-부모부제, 텍서-동성혼, 전쟁-출전-전란평정 화소 결합. 그런데 이들의 결합 순서, 서사 전개 상의 위치 변화, 서사적 비중에 차이가 있는바, <방한립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방한립전>의 주요화소 결합 양상

<방한립전>의 구체적인 화소 결합 양상을 위 서사패턴에 대응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사패턴	주요화소 결합 양상		<방한립전> 주요화소 결합 양상
패턴1	태몽-적강-천정연	1	태몽
패턴2	부모부제-남장-조력자	2	남장-부모부제-과거급제
패턴3	텍서-동성혼-과거급제	3	텍서-동성혼-정체고백
패턴4	전쟁-출전-전란평정	4	전쟁-출전-전란평정
패턴5	정체고백-환복-성혼-일부다처	5	정체고백- 적강-천정연

이를 보면 군담을 구성하는 패턴4를 제외한 주요화소 결합 양상에 변화가 있음이 잘 드러난다.

먼저 다섯 작품과 다르게 <방한립전>에는 작품 서두에 패턴1이 오지 않는다. 영웅소설에서 패턴1은 대개 남녀의 결연이 예정된 것임을 드러내는

장치로서 사용된다. <이대봉전>, <김희경전>, <정수정전>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방한림전>에는 태몽 화소만이 나타나는데, 이는 남녀결연담을 삽입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짐작된다. 주지하다시피 <방한림전>에는 남성 주인공, 나아가 비범한 남성 인물형 자체가 부재한다.¹⁴⁾ 즉 캐릭터 상 방관주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남성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서사구조상 남성 인물과의 결연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

한편, 표에 보이듯이 <방한림전>에는 패턴2에서의 조력자 화소가 없고 대신 과거급제 화소가 온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부모부재-남장 화소 순으로 결합하는 것과 달리, 남장 화소 다음에 부모부재 화소가 온다는 점도 특이하다. 물론 <홍계월전>도 이와 비슷한 결합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홍계월의 남장은, 도사가 부모와의 이별을 예언한 이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¹⁵⁾ 역시 부모 부재로 인해 남장을 하게 되는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결합 양상의 변화로 인해, <방한림전>의 남장은 여타 여성영웅소설과는 사뭇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보통 부모 부재-남장 화소의 결합에서 부모부재 화소는 남장 화소의 원인 격이 된다. 따라서 이들 작품에서 남장은 일종의 권도(權道)로써 그려진다. 그러나 남장-부모부재 화소의 결합에서 남장은 능동적이며 목적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실제로 <방한림전>에는 방관주의 남장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⁶⁾ 또 갈등 없이 부모의 인정을 받는다는 점에서 ‘효(孝)’를 실천하는 행위로 여겨지기도 한다.¹⁷⁾ 따라서 이 다음에 오는

14) ‘남성 주인공’이라 지칭하지 않은 것은 <방한림전> 외에도 여성 주인공만 등장하는 작품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홍계월전>, <정비전>이 그러하다. 물론 연구자에 따라 여보국과 태자를 각각 남성 주인공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금환기봉>, <정수정전> 속 김희경, 장연의 캐릭터성과 서사적 비중을 볼 때, 확연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5) “도사(道士)의 말을 듣고 도로여 안이 들름만 갖지 못하여 부인(夫人)을 더하여 이 말을 일으키니 엮어 무궁하여 계월(桂月)을 남복(男服)을 입피 초당(草堂)의 두고 글을 가르치니 일남적귀(一覽輒記)라” <홍계월전>, 103면.

16) “부모 인중(人中)하야 아달 읍스름 혼치 아니하고 홍금치의(紅錦彩衣)로 입피되 문빅 소제 천성이 소탈하고 금소(金素)하야 취삼으로 체긴 옷슬 입고자 혼난지라 방공녀의 너아의 뜻슬 맛초아 쇼원되로 남복(男服)을 지어 입피고 …… 방적수선(紡績修繕)을 권흔즉 스스로 폐(廢)히니 부모 또한 여아의 지모(才貌) 범인이 아니라 또한 슬피 역이물 굿터여 권치안코 여복(女服)을 나오지 아니하고 친척으로 호아금 아달이라 호던니” <방한림전>, 4~5면.

과거급제의 성격 또한 필연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놓이게 된다.¹⁸⁾

반면 패턴2가 나타나는 <이대봉전>, <금환기봉>, <홍계월전>의 경우, 과거급제 화소는 수단적이거나 수동적인 성격을 보인다. 원수에 대한 복수(<이대봉전>)나 혼인 지연(<금환기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도사의 지시(<홍계월전>)와 같은 타의에 의해 과거 응시를 하기 때문이다. 부모부재-남장 화소 결합만 나타나는 <정수정전> 역시,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과거에 응시한다. 이처럼 부모부재-남장 화소의 결합 형태가 과거급제 화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패턴 3에서 택서-동성혼 화소 결합은 핵심을 이루며 서사적 긴장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그런데 <방한림전>의 경우, 여기에 정체고백 화소가 결합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면모를 지니게 된다. 과거 응시나 전쟁으로 인해 동성혼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고백으로 인해 동성혼이 성사 및 유지되는 것이다. 물론 <정미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정체고백 후 환복하여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정성모와 달리, 방관주는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지위를 유지한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 인물형이 부재하기 때문으로, 앞서 보았듯 패턴1이 없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결국, 구조상 남성 인물과의 결연 가능성이 배제됨으로써, <방한림전> 속 동성혼 화소는 남녀 결연 과정의 일환으로 쓰일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동성혼을 하는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지적했듯 <방한림전>에는 패턴5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정체고백 화소에 적강-천정연 화소가 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적강-천정연 화소의 결합은 여타 영웅소설과는 다른 함의를 가지게 된다. 보통 영웅의 적강은 죄에 대한 벌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죄는, 유토피아적 세계인 천상에 있을 자격을 박탈하는 기능, 영웅의 비범성을 설명하는 기능을 주로 갖는다. 즉, 그들의 죄는 등장인물의 실존과 다소 동떨

17) 이는 방관주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잘 드러난다: “니 님의 선친(先親)과 모명(母命)을 맞자와 남아(男兒)로 형혼 지 십 년이 거의요 혼 번도 기복(改服)혼 빙 읍난니 웃지 줄연(猝然)이 너의 집심(執心)을 곳치며 선부모의 뜻을 저버리이요?” <방한림전>, 6면.

18) 이는 방관주가 과거응시를 결심하며 한 다음의 말에서 잘 나타난다: “니 비록 여즈나 그 처신을 남즈로 호여스니 시속 여즈의 가부(家夫) 섬기난 도를 뉘 호리요” <방한림전>, 8면.

어진 허상으로서의 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한림전>에서 죄의 의미는 달라진다. 방관주의 죄는 그가 여자로 태어나게 된 원인이 되므로, 그 실질적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요컨대 <방한림전>에서 이들 화소는, 동성혼을 합리화함과 동시에, 방관주와 영혜빙의 삶이 단죄(斷罪)라는 의미를 갖게 한다. 즉, 작품이 가지는 파격성을 완화하면서도 여성의 삶에 대한 작자의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⁹⁾

III. 장르관습에서 본 <방한림전>의 창작의도

이상으로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주요화소 및 서사패턴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방한림전>의 경우, 화소의 결합 순서와 서사전개 상의 위치, 서사적 비중의 차이로 인해 다른 서사지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방한림전>의 작자는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에 숙직하고 있던 장르관습을 변용하여 작품을 창작하였다고 말이다.²⁰⁾

<방한림전>의 주요화소 결합 양상은, 방관주가 여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남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게끔 만들고 있다. 여기엔 방관주를 다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감지된다. 텍스트-동성혼-정체 고백 화소의 결합은 이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주는바, 이 과정에서 방관주의

19) 대개 여성영웅서사에서 여성영웅은 선녀로 적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방관주는 남성영웅처럼 ‘문곡성’, 즉 천상의 남성이 죄를 지어 적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은 방관주의 정체체성과 여성의식의 해석에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1)동성혼이 주는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동성혼을 흥미소로 전락시킨다는 견해(장시광, 앞의 논문, 75면), 2)인간이 지닌 양성(兩性)을 보여주어 뛰어난 여성의식을 보여준다는 견해(차옥덕, 앞의 책, 166면)가 있다. 그러나 형식과 내용적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장면은 본질적으로 다면성을 떨 수밖에 없다. 한편, 이와 같은 결합은 작중 인물이 보이는 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방관주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고 영혜빙이 여자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작자의 일관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20) 참고로 서지학적 측면에서 현전하는 <방한림전>의 이본을 검토해 보면 19세기 중후반기에 주로 필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차옥덕, 앞의 책, 75면). <이대봉전>, <금환기봉>, <정수정전> 등도 이 무렵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여성영웅소설이 성행하던 시기에 <방한림전>이 창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작중에서 방관주는 자신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피하고자 서평후의 구혼을 승낙하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른 작품에선 쉬이 나타나지 않는 장면으로 해당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임의 남자로 형세하야 종신(終身)코즈 흐미 처즈(妻子)을 두지 아니면 방인(傍人)이 의혹흐리니 차라리 아름다운 숙여(淑女)을 으더 평생지과(平生知己) 잇스미 맞당흐나 츠마 스람을 숙여 인윤(人倫)을 회지오미 어렵고 또흐 불췌우인(不肖愚人)을 만나면 즈가본스(自家本事)을 누설할가²¹⁾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방관주는 정체가 탄로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써 동성혼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달리, 여타 작품의 등장인물은 동성혼에 대해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정체가 탄로 날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이대봉전>의 장애황은 어떤 고민도 없이 동성혼을 수락하고, <정비전>, <금환기봉>에는 난색을 표하는 장면은 등장하지만 고민은 없고, <정수정전>에는 정수전의 난처함과 고민이 별다른 갈등 없이 소략한 채로 그려진다. 물론 방관주 또한 정체가 탄로날 것을 걱정하지만, 동성혼으로 정체를 은폐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 맥락이 다르다.

이후 방관주는 영혜빙의 비범성을 알아보고선 혼인을 수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모인 주유랑과 갈등을 겪게 된다.

방할임이 뷰중(府中)의 도라가 영가 혼스(婚事)를 주유랑을 보고 일은니 유모 실식(失色) 왓 “가(可)치안타 우리 낭군의 혼스난 옥 갖튼 군즈(君子)의 잇스니 옷지 규슈(閨秀)의 잇스리오? 이렇듯 고히(怪異)흐 거쇼(舉措)를 흐시고 나종을 엇지려 흐신닛가?” 할임이 미쇼(微笑) 왓 “이난 니 헤아리미 잇난니 모로미 어미난 말만 출구치 말고 길예(吉禮)나 준비하라 이목이 허다(許多)흐니 유모의 구설노써 나의 철옥 갖튼 마음과 일생(一生)을 회짓치 말나.”²²⁾

이처럼 <방한림전>에는 동성혼을 둘러싼 인물의 내적·외적 갈등이 께

21) <방한림전>, 14~15면.

22) <방한림전>, 17면.

진하게 그려지는바, 그 과정에서 방관주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보인다.²³⁾ 심지어 자신의 정체를 영혜빙에게 고백하는 장면에서도 “다만 너의 본적(本籍)을 누설치 못하련이 즈(子)의 침묵함을 바라노라”²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방관주의 의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방관주가 이토록 자신의 삶을 지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체가 발각되거나 남성과 결연하게 된 다른 여성영웅의 태도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가령 장선빙은 자신이 이룬 공명을 단념하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했고, 정수정은 장연과의 관계에서 슬픔과 울분을 느꼈으며, 홍계월은 남자가 되지 못함을 한스럽게 여겼다.²⁵⁾ 당대 유교 사회는 생물학적 성(性)과 젠더가 일치되어 있었기에, 여성영웅은 남장을 통해 얻었던 삶을 버리고 남성에게 예측된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²⁶⁾ 이에 대한 반발이 등장인물의 언행을 통해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이 구체적일 말로써 천명되기도 한다.

가석다. 저 당시의 몸을 남의계 허치 아니코 큰 뜻을 먹어 임의 계화(桂花)를 썩거 농문(龍文)의 오롤진디 당당 춤의롤 다하여 님군을 섬기며 느라흘 밧드러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일흠이 만세의유전흠미 울컹늘 엇지 아롭다운 일을 바리고 규중의 침몰하여 힘힘이 세월을 보니는고?²⁷⁾

23) 물론 서평후의 강요와 영혜빙의 의지가 주요한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방관주는 서평후의 구혼 이전에 이미 고관들의 구혼을 거절해 왔다. 그리고 영혜빙의 의지는 동성혼의 성사보단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방관주의 의지 없이 동성혼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방한립전>, 23면.

25) <이대봉전>과 <정비전>의 여성영웅에게는 이러한 면모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의 남장이 근본적으로 남성과의 결연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써 행해지기 때문이다. 장애황은 정혼한 이대봉의 원수를 갚기 위해 남장을 하고, 정성모는 왕비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26) 물론 작품에 따라선 여성으로 돌아와도 수여 받은 작록이 유지되기도 한다. <홍계월전>이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천자는 유지(諭旨)와 인수(印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규방에 처해 있어야 하고, 아내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남편 여보국과 침예한 갈등을 겪는다. 이 점에서 홍계월이 평국으로서 획득한 삶을 온전히 유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7) <금환기봉>, 161면.

위는 <금환기봉>에서 장선빙과 정혼하였던 이 소저의 말이다. 그는, 장선빙이 여자로 돌아와 김희경과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입신양명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규방 속 여인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한립전>의 작자는 방관주에 건줄 남성 인물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유모 주유랑의 말대로 “옥 갖튼 군자(君子)”가 있었다면 방관주 또한 여타 여성영웅들처럼 여성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모른다.

기실 당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녀 간의 혼사는 인륜의 근본으로 여겨졌다.²⁸⁾ 그러므로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연은 매우 불운한 일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는 방관주의 유모 주유랑과 첨예하게 갈등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주유랑은 낙성의 혼사가 정해진 것을 기뻐하는 두 사람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물초목금슈(萬物草木禽獸) 다 일흠이 다 음양의 드난게 썩 "허거날 낭군과 부인은 인운을 스절(辭絶) 허시고 여광(年光)이 이십이 지나 계시거날 두 소저 흥 옥초순(紅玉初春)이 앓갑고 우호로 양위노야(兩位老爺) 목주(木主)을 근심 허나이 장초 나훤이 엇지 되었고? 더욱 부인은 침묵 허시고 가지록 고흐스 지금갓 실상을 존당(尊堂)의 고(告)치 안이스 일양 주표(朱標)을 감초아 스스로 무즈(無子)한 체 허신이 웃지 고이(怪異)치 안이릿고? 원컨디 양위주인(兩位主人)은 계교을 생각흐스 진짓 군자(君子)을 으드스 황영(黃英)의 즈미(姊妹) 갖타시미 울흘가 허난니²⁹⁾

주유랑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두 사람을 비판한다. 두 사람의 결연이 자연의 섭리와 인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부모 제사를 받들 후사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해 그 해결책으로 두 사람이 한 군자와 결연하여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처럼 지낼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는 여타 여성영웅소설에서도 두루 확인된다는 것이다.

28) 조선 시대의 혼인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대사(大事)로 간주되어 적극 장려되었다. 특히 여성의 혼인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혼적』,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참고.
29) <방한립전>, 37~38면.

①희 부인니 나와 영접호여 니당의 좌정호고 춤널을 디호여 칭하 왈 “왕비는 적년 고행을 격다가 〃 군을 만나 영화이 본국으로 가거니와 노신을 반복호여 남즈호나 토업고 다만 녀식 일기를 두어 늙은 몸이 의탁고져 호여더니 당공즈의 몸이 일조의 변호여 초국왕비 되어시니 복원 왕비는 노신모녀의 평생을 엇지 처치코져 하시난닛고?” 왕비 묵 〃 반향의 초왕을 향호여 전후스연을 설파호고 최쇼저로 지취호를 권호니 왕이 스양하다가 마지못호여 즉시 턱일호여 최쇼제로 더부러 혼례를 지너니 최쇼제 황용월티 호호 빠허나 춤열왕비의게 나리지 아니호니 초왕이 만심환회호여 초왕부 왕비를 삼고³⁰⁾

②“쇼비 특별이 의논호을 일이 잇스와 고희옵느니 우리 쇼저의 일은 상공게서 비록 모르시나 부인은 다 아르시느니 모로미 이쇼저의 가련호은 정상(情狀)을 헤아리사 구제호를 브라오니 슴부인은 덕택을 누리오스 처치(處置)호옵쇼셔” 당부인(장선빙-인용자)이 이로디 “니 임의 정호 일이 잇시니 너는 아직 물너 잇실지어다.” …… 일작의 학식(장선빙-인용자) 불셔 공주귀 의논호여 이쇼저로 상공의 부인스름을 상귀 주달(奏達)호라 호여더니³¹⁾

③유피 가만이 고왈 “낭 〃 (嬢)이 〃 런 더스(大事)를 헛도이 허랏호시고 나중을 엇지코자 하시나닛고?” 덩비 빈미 탄왈 “나의 팔지 가지록 괴구호여 이런 곡경을 당호나 그러나 니공의 위인을 보니 관후장지라 만일 자기 녀의 불민홀진디 말삼이 그러듯 쾌활치 못호리니 이 반드시 숙녀가인이라. 아직 권도로 성네호였다가 후일의 다형이 나의 신누를 벗는 날 성상고 알외고 티자의 너궁을 빗너리니 그더는 너모 염너치 말나.” 유피 또한 그러히 너기더이³²⁾

①은 장애황과 정혼한 최 쇼저의 모친 희 부인의 말로, 장애황이 왕비가 됨으로 인해 의탁할 곳이 없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장애황은 최 쇼저를 이대봉의 후처로 맞이하는 방법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②의 장면 또한 이와 유사하다. 장선빙의 정체를 안 이 쇼저가 평생 혼자 살아가려 하자, 주위에서 그를 설득하여 김희경과의 혼인을 주선한다. ③은 조력자의

30) <이대봉전>, 484~485면.

31) <금환기봉>, 193~194면.

32) <정비전>, 468~469면.

딸과 허혼(許婚)한 정성모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유모의 말에 태자의 후궁으로 맞이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이처럼 세 작품은 근본적으로는 여성 간의 결연이 허여될 수 없는 일로 여기는바, 주유량이 말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주유량이라는 인물은 여성영웅소설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³³⁾

그런데 이런 주유량에게 방관주와 영혜빙이 오히려 반발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문제적이다. 이는 곧 자연의 섭리와 인륜, 봉제사(奉祭祀)의 문제를 거스르고서라도 이 삶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영혜빙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세상 부 〃의 영욕을 초월(楚越) 갖치 비척(訶)야 언 〃(言言)의 왈 “너즈난 죠인(罪人)이라 빅(事)의 임의(任意)치 못(訶)야 그 사람의 절제(節制)을 맞나니 남아(男兒) 못 될진대 인륜(人倫)을 굶치미 울(訶)이라” 하며 모든 제형(諸兄)들의 구차(訶)를 우스이³⁴⁾

“너즈난 죠인(罪人)”이라는 표현에서 ‘여성의 삶’이 부당하다는 영혜빙의 인식이 잘 나타난다. 심지어 그는 남편의 규제를 받으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바에야 인륜을 끊겠다고 말하고 있다. 영혜빙은 혼인하지 않음으로써 가부장제적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선빙이 자연의 섭리와 인륜을 거스를 수 없다는 시비 영춘의 말에 설득당하고,³⁵⁾ 봉제사를 이

33) 주유량이 유교적 규범과 가치관을 표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작자의 의도가 감지된다는 지적은 양혜란의 연구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림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그에 따르면 유교적 규범에 대한 갈등을 친자(親子)가 아닌 노주(奴主) 관계로 설정한 것은, 영향력이 아주 미약한 위치의 인물을 내세우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이다(119~122면). 그러나 본고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유량과 같은 인물 설정은 여타 여성영웅소설에도 등장한다. 또 여성 간의 결연에 대한 장르관습을 잘 알고 있는바, 유형적 인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34) <방한림전>, 14면.

35) “쭈쭈(訶)더니 낭구(良久) 후의 영춘이 좌(座)를 썬나(訶)와 굴(訶)오디 이 일은 하늘이 시기시미오, 인력(人力)이 아닌 줄을 엮지 못(訶)시(訶)닛고? 하늘이 스통을 니시(訶) 남녀(男女)를 분(分)하야 인륜(人倫)을 멩(定)히시미어늘 쇼제 텃의(天意)를 거스르스 친(訶)늘 남(訶)裝(男裝)으로 음양(陰陽)을 폐(廢)히시니 …… 만고(萬古)의 괴롱(譏弄)을 멩치 못(訶)시리니 세 번(訶)싱각(訶)스 한 번(訶)혐의(嫌疑)를 거르이지 마르쇼셔. 언담(言談)이 종용(從容)하고 괴피(氣度)가 작(訶)혀 일호(一毫)도 의리의 버셔는 말이 업(訶)느니라. 학시(장선빙-인용자) 듯기(訶)를 다(訶)히 상(訶)연

유로 이 소저와 흥계월이 남성과 결연을 하게 되고,³⁶⁾ 정수정이 부모님의 유지(遺志)에 의해 결연한 것³⁷⁾과 비교해 볼 때, 여성영웅소설사에서 굉장히 문제적인 발언일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영혜빙은 방관주의 삶을 지탱해 주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혼인의 성사 및 지속됨은 영혜빙이 없고선 불가능한 일이다. 그가 방관주의와 혼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다음의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영웅의 여자를 만나 일성 지교(知己)되어 부 〃의 〃와 형제의 정을 미친 일성을 맞초미 너의 원(願)이라 니 본디 남자의 총실(寵室)이 되어 그 절제(節制)을 밧으며 눈섭을 그려 아당(阿黨)호물 괴로이 역여 금실우지(琴瑟友之)와 종고지낙(鍾鼓之樂)을 니 원치 안던니 우연이 이런 일이 잇스니 웃지 우연타 흐리요? 반다시 천도유의(天道有意)호시미라 슈건과 밧슬 가음아난 구 〃(區區)호던 이에 서 낮지 안이리요?³⁸⁾

위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영혜빙은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종속된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여성인 방관주의와의 결연은 ‘지기(知己)’, 즉 서로 대등한 존재로서의 부부관계를 의미하고, 바로 이 때문에 혼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영혜빙은 영웅소설사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여성 인물이다. 그런데 이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워졌던 존재를 발굴해 새롭게 재창조해 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³⁹⁾ 여성 간의 결

(爽然)이 찌다라 서안(書案)을 처 츠탄 왈 어질다, 너의 쇼견(所見)이여. ……” <금환기봉>, 117~118면.

36) “쇼제 선노야(先老爺) 제소를 밧드시나 이는 쇼저의 일신분이라. 타일의 뒤 제소를 밧들니 잇고? 세월이 여류하니 쇼제 세상을 바리시면 비록 그늘이라도 선노야 묘하(墓下)의 초동목 슈(樵童牧豎)의 썩히 되리니 이찌 노야 녕혼이신덜 슬허 아니 흐시리요? ……” <금환기봉>, 192면; “소녀의 마음은 평성을 홀노 늘거 부모 실하의 잇습다가 죽은 후의 다시 남즈 되야 孔孟의 횡실을 비오고즈 흐여습더니, 근본이 탈노호와 천즈 하교 일어흐옵시니, 부모임도 슬하의 다른 즈식이 읍셔 비회를 품고 선연 봉소를 전할 곳이 읍셔스오니, 즈식이 되야 부모 슈을 웃지 거역하며 천즈 하교를 웃지 비반호오리가? ……” <흥계월전>, 157면.

37) “내 일즉 이 〳트미 본디 부모 유교(遺教)를 저버리지 못호미오, 다시 황은(皇恩)을 밧들무로 구약(舊約)을 청정(聽政)호여 부뷔(夫婦) 임의 되어시나 ……” <정수정전>, 259면.

38) <방한림전>, 19면.

연에서 영혜빙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은 존재해 왔다. <이대봉전>의 최 소저, <정비전>의 이 소저, <금환기봉>의 이 소저와 애경 공주, 그리고 <정수정전>의 공주가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은 결연 당사자임에도 존재가 소거되거나(<이대봉전>) 결연에 대한 의사는 결여된 일종의 들러리로서 등장한다(<정비전>, <정수정전>). 그리고 그 결과, 남성 주인공과 기계적으로 결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물론 작품에 따라 개인 서사가 부여되기도 한다(<금환기봉>). 그러나 이 또한 남성 주인공의 결연담을 확장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작중에서 이들은 “죄악(罪惡)이 중후여 슬하(膝下)의 아들이 업고 다만 일네(一女)”⁴⁰⁾ 있는데 “숙녀가인(淑女佳人)은 되지 못”⁴¹⁾해도 “죽히 군즈의 건질(巾櫛)을 밧들만”⁴²⁾하다는 제3자의 말로 묘사된다.⁴³⁾ 혼인에 대한 그들의 의사는 부모의 말과 글로써 대체되거나 유교 이념의 틀 안에서 전달될 뿐이다. 즉, 가부장적 유교 사회의 하위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영혜빙으로 캐릭터화한 것은, 재현자에 의해 가려진 목소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체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이처럼 <방한림전>은 주유랑이라는 유형적 인물을 반동 인물로 설정하고, 소거되었던 여성인물을 영혜빙이라는 주체적 캐릭터로 구현해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는 이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⁴⁴⁾

39) 사실 영혜빙이라는 인물이 가진 독특한 면모는 많은 선행연구들에 의해 밝혀져 왔다. 그러나 이 인물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으로부터 파생된 존재임을 지적한 연구는 지금까지 확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영혜빙이 가진 독특한 면모는, 그 자체로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작자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인물이 기존의 인물 형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사실은, 작법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영혜빙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의식한 결과로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0) <금환기봉>, 58면.

41) <정비전>, 468면.

42) <이대봉전>, 443면.

43) 물론 <방한림전>의 경우에도, 영혜빙의 부친인 서평후의 말에 의해 혼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서평후에게선 영혜빙을 낮추는 말은 일절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앞의 장면에 남성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영혜빙을 등장시킴으로써 여타 작품과는 확연히 다른 인물임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정수정전>에는 이러한 말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혼담이 오가는 상대가 황실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영혜빙의 존재로 인해 <방한립전>에 나타난 동성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남장’으로 상징되는 남성으로서의 삶과, 남성에게 통제 받지 않는 여성의 삶, 즉 서로 다른 삶을 살고자 한 여성들 간의 연대이다. 이러한 여성 간의 연대는 양성의 ‘평등(동일성)’을 추구한 방관주와 양성의 ‘차이’를 추구한 영혜빙의 연대로, 이들의 동성혼은 가부장제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평가된 바 있다.⁴⁵⁾ 이는 본고의 입장과는 일부 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러나 동일성의 관점에서 방관주와 영혜빙을 나눠 볼 경우, 두 사람의 갈등 양상에 담긴 문제의식이 명확히 해명되기 어렵다.

주지하다시피 방관주와 영혜빙의 갈등은 작품 곳곳에 나타나 있다. 이때 방관주는 모순적이게도 “여도(女道)”를 알라며 가부장적 가치를 답습하는 면모를 보인다.⁴⁶⁾ 그러나 이에 대해 영혜빙은 두 사람이 대등한 존재임을 견지하려 하는바, 다음 대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부인이 낭소(浪笑)왈 “군주 상금(賞給) 맞든 거슬 아즈(兒子)와 그더난 가지되 첩의게난 맞치지 안이흐니 엇지요?” 승상이 쇼왈 “이거슨 다 부인의게 당치 안이흐 비라 가이 부인을 주지 안컨이와 시방 부인 몸 우회 가진 위의 다 니게서 비로슨 비라 흠독흐거날 투정흐신니 욕심이 지중(至重)호도다.” 부인이 잠쇼(潛笑)왈 “니의 당치 안인 비 그더게 홀노 당할 비 잇스리요? 맛참니 저리 쾌(快)흐 체하시난요?”⁴⁷⁾

영혜빙은 왜 아내에게는 남편·자식과 같은 동등한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가 묻고 있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 하의 여성이 왜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못하는가에 대한 물음인 것이다. 이는 영혜빙이 종속된 존재로서의

44) 최지녀(2020) 또한 주유량의 말을 통해, <방한립전>이 여성영웅소설의 문법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동성혼 화소를 작품에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여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라 본 바 있다(49면). 그러나 논의의 중심이 동성혼 화소에 있었던 만큼, 여성영웅의 장르관습이 <방한립전>에서 어떻게 변용되는지는 살피고 있지 않다.

45) 박혜숙, 앞의 논문, 101면 참조.

46) “부인이 날호여 냉소(冷笑)왈 문빅형은 웃지 우연한 일의 유모를 질타흐신난요? 유모 불과(不過) 위주충심(爲主忠心)이라. 또흐 알음답지 안이야? 상서 봉안을 홀여 영씨를 숙시왈 부인이 여도를 알찌라. 웃지 가장의 즈를 부르난요? 니 오히려 모주라 알아난이 부인의 일이 가히 올흔야? 영부인이 낭 # 이 웃더라” <방한립전>, 39면.

47) <방한립전>, 59면.

여성상을 거부하였기에 가능한 문제제기이며, 여성의 고정된 공간과 역할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다.⁴⁸⁾

이처럼 <방한립전>의 작자는, 장르관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작해 가는 과정에서 가부장제의 젠더 위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된 것으로 보인다.⁴⁹⁾ 물론, 이를 작품 전면에 내세워 본격적인 문제로 삼지 못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적 자유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시도를 결코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여성영웅소설 소재 주요화소의 분포와 패턴을 살피고, <방한립전>의 주요화소 및 결합 양상의 변화와 그 서사지향을 규명해 보았다. 여성영웅의 서사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주요화소는 다음과 같았다: 적강, 천정연, 부모부재, 남장, 조력자, 택서, 동성훈, 과거급제, 출전, 정체고백, 환복, 성훈, 일부다쳐 화소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특정한 서사패턴을 이루는데, 각 서사패턴에서 적강-천정연, 남장-부모부재, 택서-동성훈, 출전-전란평정 화소의 결합이 핵심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방한립전>에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어 이 작품이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을 준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방한립전>의 경우, 화소의 결합 순서 및 서사전개 상의 위치에 차이가 나타난다. 여타 작품이 부모부재-남장 화소 결합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남장-부모부재 화소 결합 형태를 보인다. 또 택서-동성훈 화소 뒤에 과거급제나 전쟁 화소가 아닌, 정체고백 화소를 결합시키고 있다. 한편 동성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정한

48)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영혜빙이 성별역할 이분법을 견고하게 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평가(박혜숙, 앞의 논문, 99면)와 견해를 달리한다.

49) 강혜규는 방관주와 영혜빙의 갈등이 가부장적 사회의 부부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다고 논의한 바 있다(『『방한립전』의 중첩된 갈등구조』,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21, 164~168면). 본고는 이에 동의하면서도 <방한립전>의 지향점이 부부관계만이 아닌, 가부장제의 여성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있었다고 본다.

화소—비범한 남성 인물 화소를 배제하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 결말 부분도 여타 여성영웅소설과는 궤를 달리한다. 대개 남성결연담을 구성하는 적강-천정연 화소의 결합을, 작품 후반에 배치하여 그 성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방한림전>의 이러한 변화는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대한 작자의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동성훈이 방관주의 정체를 은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써 인식된 점, 여성영웅소설의 전형성을 지닌 인물에 반발하는 인물형과 서사를 그려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가부장적 질서와 유교 이념에 의해 재현된 여성인물을, ‘영혜빙’이란 인물로 재창조해 내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통해 두 여성은 불완전하나마 자신이 원하던 삶을 각각 쟁취하게 된다. 이는 작자의 문제의식에 따른 설정으로써,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들’의 주체적 삶에 대한 하나의 모색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방한림전>은 작자의 여성적 시각에 의해, 의도적으로 장르관습을 변형시켜 창작된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장르관습이 통속성을 담보하는 지표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통속적이면서도 통속적이지 않은 독특한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기실, 통속적인 의식과 진정한 의식의 경계는 항상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⁵⁰⁾ <방한림전>은 이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당대 가부장제 및 유교 이념에 대한 갈등과 고뇌를 여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의 변용을 통해 잘 담아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0) 박혜숙, 앞의 논문, 76면을 참고하였다. 그는 이에 더해 “때로는 통속적 의식에도 ‘세계에 대한 불만’과 ‘변화에 대한 열망’은 깃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는데, 본고 역시 이와 같은 시각에 동의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방훈입전>, 『나손본 필사본 고소설자료총서』 11, 보경문화사, 1991.
김유경·이윤석 교주, 『유충렬전·정비전』, 이회, 2005.
이윤석·김경숙 교주, 『홍길동전·임장군전·정을선전·이대봉전』, 경인문화사, 2007.
임치균·이지영·강문종 교주, 『금환기봉·정수정전·홍백화전』, 한국학중앙연구원, 2017.
조광국 역, 『홍계월전』, 문학동네, 2017.
조희웅 저, 『고전소설즐거리지침』, 집문당, 2002.

2. 단행본

- 차옥덕, 『백년 전의 경고-방한림전과 여성주의』, 아세아문화사, 2000.

3. 논문

- 강승목, 「<김희경전> 이본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석사학위논문, 2013.
강혜규, 『「방한림전」의 중첩된 갈등구조』, 『Journal of Korean Culture』 54, 한국어문
학국제학술포럼, 2021, 157~183면.
곽보미, 「영웅소설의 무장화소 연구」, 서울대석사학위 논문, 2018.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면.
김경숙, 「『이대봉전』 이본고-동양문고본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5, 열상고
전연구회, 2007, 87~124면.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연구』 21,
반교어문학회, 2006, 223~252면.
_____, 「〈이대봉전〉의 이본 고찰을 통한 소설사적 위상 재고」, 『우리문학연구』 42,
우리문학회, 2014, 7~42면.
김진영, 「화소와 결구방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유형성」, 『한국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새문사, 2005, 115~138면.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시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
교 국어국문학과, 2002, 225~245면.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면.

- 박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지기와 그 의미』, 『고전과해석』 25,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 155~183면.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 71~109면.
- 사진실, 『『정수정전』이본의 계통과 변모양상』,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집문당, 1998, 549~574면.
-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사회의 성차별의식 고찰-〈방한립전〉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09~155면.
- 장시광, 『〈방한립전〉의 여성인물과 동성결혼』,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51~77면.
- 정준식, 『〈홍계월전〉 이본 재론』, 『어문학』 101, 한국어문학회, 2008, 244~279면.
- 정지영, 『조선시대 혼인장려책과 독신여성: 유교적 가부장제와 주변적 여성의 흔적』, 『한국여성학』 20, 한국여성학회, 2004, 5~37면.
- 조현우, 『〈방한립전〉에 나타난 ‘갈등’과 ‘우울’의 정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6, 97~132면.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고소설에 나타난 동성혼(同性婚)의 양상과 의미-〈홍백화전〉, 〈부장양문록〉, 〈방한립전〉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1, 국문학회, 2020, 29~57면.

The Genre Convention of Heroine Narrative and Feministic Views of *Banghwanlimjeon*

Kwak, Bo-mi

Banghwanlimjeon has been noted, because it has no male character and the marriage between two women. In view of the genre convention of heroine narrative, it has been antithetically evaluated. However, there are two problems: 1)The marriage between two women is the motif commonly found in Heroine Narrative. 2)*Banghwanlimjeon* is discussed without specific standards of the genre convention of heroine narrative.

In fact, if there are motifs generally used between the narratives, it's possible to assume that these belong in the same category. Actually, there are primary motifs & narrative patterns in the heroine narrative. It means *Banghwanlimjeon* is based on the genre convention of heroine narrative. However, the changes of bond order and position of primary motifs in the epic make differences.

The important thing, these changes are caused by an author who has a critical mind. It is supported by using same-sex marriage and setting antagonist, Joo Yu-Rang, who has a typical character in the heroine narrative. Above all, Yeong Hye-bing is recreated from the female characters who are ruled out of marriage. She comes out of them who are reproduced by the patriarchal system and Confucianism. With this, the same-sex marriage is becoming a solidarity between women who want to live each gender role without patriarchal control.

In the end, *Banghwanlimjeon* is created by an author who has a critical mind of the genre convention of heroine narrative.

Keywords: Heroine Narrative, Genre Convention, Motif, Narrative Pattern, Same-Sex Marriage, *Banghwanlimjeon*

접수일자: 2022. 9. 30.
심사기간: 2022.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2. 11. 10.